

##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인공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NGHUN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모든 인간을 향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그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12월28일) 시간에 네분의 장로들이 발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유대 박물관에서 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마 2:1~2).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찾는 질문은

첫 성탄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왔다. 과연 그 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번 주 금요일의 시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믿음의 답변을 기도로 중보한 네 분의 장로들을 통해서 듣고자 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참석하여서 메시아의 존재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란다.



## 연말 교회 행사 일정보

| 12/23(오늘)                            | 12/24(월)                                                                                | 12/25(화)                                              | 12/27(목)                                                           | 12/30(주일)                             | 2002년1월(월)                                                                                         |
|--------------------------------------|-----------------------------------------------------------------------------------------|-------------------------------------------------------|--------------------------------------------------------------------|---------------------------------------|----------------------------------------------------------------------------------------------------|
| 1. 성탄 축하 찬양예배<br>(임파뉴 찬양대)<br>장소: 본당 | 2. 2002년도 단기선언도 설명회<br>시간: 오후 4시<br>장소: 당회실<br>대상: 당원회, 교역자, 안수집사<br>회 및 전교회 회장단, 단기선교사 | 1. 성탄 축하 찬양의 밤<br>(교회학교 발표회)<br>시간: 오후 6시<br>장소: 갈릴리움 | 1. 성탄 축하예배<br>시간: 오후 9시, 11시<br>장소: 본당<br>(예측들은 9시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 1. 교사총회<br>시간: 오후 7시<br>장소: 갈릴리움과 부속실 | 1. 공동의회<br>(2001년도 결산 및 2002년도 예산)<br>시간: 장안예배 후 장소: 본당<br>2. 원로·은퇴자 및 은퇴자 포럼<br>시간: 찬양예배 후 장소: 본당 |

##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사 9:6~7)**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 전에 고통하던 자들이었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려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1~2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한 아기' 또는 '한 아들'로 인하여 그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다. 이사가야 노래하는 '한 아기는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수많은 아기들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이사가야 선포하는 '한 아들'은 여러 명의 아들 중 어떤 한 명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 '한 아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요1:14). 그 '한 아님'은 영원 전(前)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셨다(요1:18).

"그 아께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찬송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 '한 아기', 그 '한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독생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정사를 어깨에 짊어지신 자였다. 그의 이름은 놀랍고 찬찬한 위대한 기묘자요 묘사Wonderful Counselor였고, 그의 능력에 있어서 찬송하신 하나님(Mighty God)이었다. 그는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요1:2) 영존하시는 아버지(Eternal Father)이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하시는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이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량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 - 그 한 아기는 칭찬 받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실 분이니(마 2:10).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主)가 되사(사 9:16), 자라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땅에서는 기뻐할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실 그리스도 주자(사 9:6)이다(마 2:11).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라" -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때가 차며' 총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기까지 한 것이(마 4:4).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각 육신의 연약함으로 임하여야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골 8:3,4). 까질 줄 모르고 티끌로써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고 하위의 범죄 이후부터 그분은 좁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셨다(골 1:2). 마침내 인간의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실 '한 아기',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 그 '한 아기'는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지적했다. 예수 그의 이름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었는가? '자기 백성을 저쳐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 그 '한 아기'는 인간의 면면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마 7:21~22). 그래서 그 '한 아들'은 인간을 아람답다고 말하지 않으셨으며, 처음부터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셨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셨고(마 9:12),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셨다(마 9:11). 그러므로 천국은 죄인들을 죄악에서 구해주시는 곳이며, 지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는 죄인들을 들어가는 곳이다. 그 '한 아들'은 자리다름을 하는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리니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교훈하셨으므로 그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마 18:3).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삶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하셨다. 그는 결코 혼란함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스승들과는 다르셨다. 그는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믿음에 굳히시길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다. 자신은 죄를 예비하려 한다고 하셨다. 죄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다(요 14:1~3).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은혜를 너희가 일기와 부모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갚아줄 의무는 그의 갚아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니라"(고후 8:9) - 그 '한 아기'는 가장 부유한 분이니(마 1:12) 가장 가난하게 되신 분이었다. 그 '한 아기'가 처음으로 누운 곳은 베냐민은 마귀의 구유였다. 그 '한 아기'는 예루살렘에 왔으나 임상하실 때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사 9:9). 이 세상에서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법은 없다. 그러나 비천한 고로 태어난 '한 아기'는 비천한 나귀를 타고 황궁으로 임상하셨다. 그리고 비천한 노승을 임하셨다. '한 아들'은 겸손으로선 십자가를 지니, 마지막으로 벌린 무릎을 침대 삼아 누우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모두가 그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이었다(마 11:29).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열심에 대한 순종하심 때문이었다.

## 신학 칼럼

## 신적 은혜의 사역자로서의 성령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나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없이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고 의미있는 말이다.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참으로 많이 사용된다. 성경에서 사용할 때 언제나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의미는 '은혜'란 참 수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물들에게 배부하시는 능동적이고 활동적 원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물에 요구나 그들의 공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값없이 주시는 축복을 말한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성령이 동원(動員)되어 사람의 마음에 시행되는 하나님의 무조건(無條件)적인 사역을 의미한다. 즉, '은혜'는 성령의 내면적 사역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신적 축복들의 능동적인 전달이라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적이고, 무조건적인 구속의 사역을 말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은 죄인들에게 배부하는 구원의 은혜의 생생한 체현(體現)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활에 베풀어지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은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도를 배워야 믿게 되고, 이를 부인하여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중요성이기에 그 은혜의 사역자가 되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여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 구세주를 바라보며

(눅 2:15~20)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 구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구약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관해서 기록된 많은 예언들을 발견합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환경 파리가 있었습니까? 축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했습니까? 즐거운 성탄의 시간이었습니까? 슬프게도,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은 ‘제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매몰하게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게 된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예언들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진리가 왔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으며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생명의 참 진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까.

## 천사와 대면하는 천한 목자들

어떤 가난하고 낮은 목자들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자를 만드느라 만들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에 의해 둘러 쌓여진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아멘! 참으로 그들은 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지금까지 결코 이러한 놀라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것이 갑작스럽게 광대하고 격렬한 곳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 얼마나 평화라 넘치는 메시지입니까!

##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 기쁜 소식을 드러냈다는 것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천사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보았고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천하가 맑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아멘! 목자들에게 전했던 천사들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목자들은 순순

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은 하늘에 속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14절). 탄생하신 예수로 인하여 하늘 왕국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있으며, 질병이 가득한 이 세상이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들이 들었던 천상의 하모니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었던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탄생하신 밤에 차가운 공기를 가득 채우는 천상의 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하고 훌륭하다는 음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은 가장 달콤한 음악이며,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소리입니다. 이 놀라운 곡조는 이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심과 지친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 고난받는 메시아

어떻게 성육신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이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2-3).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들 앞에 나타났던 아름다움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사가 53장은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 낮은 곳에 임하신 메시아

누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표는 목자들이 강보에 싸여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속한 것들은 가장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감람하셨습니다. 그것을 노래했고, 세상이 오신 그 분에 대한 증표로써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위임 있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호화로운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담요에 덮여있지도 않

았습니다. 복음의 증표는 단지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세상의 구세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4).

## 믿음으로 달려간 허름한 마구간

목자들은 메시아를 분명하게 들었고, 그 기쁜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워 계신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흥분되었고, 급히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구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갈보리 언덕과 같은 곳! 목자들은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사의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시는 은총으로 가득한 잔치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하늘에서는 지극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있는 그 아기는 십자가를 건디시는 분이며, 겸손의 왕이시고, 겸허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목자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징표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구세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가득한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은 하늘의 은총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임한 축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입니다. 목자들은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바라보았고 선포하였습니다.

## 메시아를 만나야 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메시아를 만나보셨습니까? 구유나 갈보리에서 메시아를 찾아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는 복음 그 자체이시고,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겸손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가장 위대한 축복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지극한 영광이 되십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를 믿으시고 만나십시오. 어느 누구라도 그 분께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지극히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언 되어서 그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그 증거를 선포합니다. ■



김성관 목사

#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

(롬 14:11~12)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경고

오늘의 본문은 아주 강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모든’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해석적인 단어입니다. 비록 본문의 전후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말은 어떠한 사람이나 각각의 개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총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인 이사야 45:23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실제로 인용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사 45:23). 성경의 이 본문은 정말로 강력한 경고입니다.

##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경고

왜 이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4:9에 그 대담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고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소유하신 소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일은 변명하거나 지체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또는 미래에 태어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만남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고가 지나친 간섭이고,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상식에서 벗어난 경고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거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들도 심판대로의 부르심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문제는 ‘여러분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세게 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7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될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은 어떤 형태나 양식으로든지 도무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반드시 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만남을 준비해야 함

정차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필요한 명령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살아왔고, 기독교 학교에 다녔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기독교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세례 받고 성찬식에 참여해도, 또는 다른 사람보다 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절대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구원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라’는 다 최후함이 앞서기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 64:6).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뒤로 아담과 하와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 만남을 위한 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절름발이는 우리의 허물을 입함으로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입함이라 그가 정결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3). 만일 이사야에 나타난 본분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만큼 강하지 않다면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듣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 아멘! 그것이 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여러분은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 고 백

오늘은 200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들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행한 것들을 계산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 그를 찬양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가 없이는 결코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고백하거만하면 누구든지 의로움으로 깨끗하게 씻기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 R국의 크리스마스

정은 회 (선교사)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고 항상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아프리카 R국의 크리스마스!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의 성탄절! R국의 기독교인들은 특징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하다. 복부 무슬림들의 차별과 박대를 받아야만 하고,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리는 흙집에서 난민촌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남부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자 북부에 기독교가 확산되게 하셨던 것이다. 할렐루야!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 R국! R국 현지인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는 때때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곤 한다. R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된 그 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이 날만큼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많은 R국의 부족들(누에르, 탕가, 월록, 잔다...)이 하나되어 깃발을 들고 복을 치며 R국의 수도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담하게 행진하며 복음을 선포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슬람 국가인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다.

이 행진이 있기 전에 이들은 전야 밤 각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샌다. 마치 우리의 죄를 구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밤을 새며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다린다. 성탄절 당일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 현지 교회에서는 이 날에 세례식도 함께 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몇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R국의 달콤한 과자와 사탕들을 그곳에 담아 최중들에게 돌렸다. 이런 것을 준비하러면 그들의 형편에 어려울 텐데도.....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R국의 크리스마스는 단지 25일만이 아니다. 크리스마스의 이 분위기는 한 달도 더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며 웃어논 게 인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때, 이들은 항상 R국의 달콤한 과자와 사탕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 하곤 한다. 아무 것이 없어도 물 한컵이라도 대접하려는 이들의 소박한 사랑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에게는 환한 기쁨의 미소가 늘 있다. 왜 일까? 이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가까웠고,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9월 말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성탄절을 맞게 되었다. 지금 R국의 성탄절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가난하지만, 많은 차별과 압박을 받고 있지만,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올해의 성탄절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는다.

## 세계관 14

## 산타 크리스도?

한 남자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방을 계약하러 온다. 온갖 갑언이설(甘言利說)로 방세는 곧바로 은행으로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든다. 어느 날 잠시 문이 열린 틈을 타 그 사람이 빈방에 들어와 산다.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오히려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州)법에 의하면 돈이 없어도 일단 계약을 맺기 때문에 쫓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집주인 부부는 망연자실할 뿐이다! 퍼시픽 하이츠(Pacific Heights)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오면 이 영화가 생각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내대일이 산타가 주인공이 되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알리는 아기 예수의 음용스러운 산타의 종소리보다 꾸밈이. 그가 누웠던 말쑥유는 우물쭈물 사슴의 뿔로 잊혀졌다. 사람들은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기보다 산타의 선물을 더 기다린다. 구원은 양말에 담겨진 선물로, 온혜는 산타의 웃음소리에 묻힌다. 전 세계에서 예수보다 산타라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다. 이 우상은 터키에서 발원하여 네덜란드에서 가장되고 미국에 이르러 빨간옷을 입고 수염도 길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넉넉한 웃음을 날리며 하늘을 날아 다닌다. 그가 다니지 못하는 곳은 없다. 사람들은 산타를 통해 기쁨을 얻고 꿈을 얻는다고 한다.

미만한 신성모독(神性冒瀆)이 없다. 우상에 관한 한 산타만큼 저 세월 태워한 우상은 없다. 그의 패션(Fashion)은 너무 유명해서 한 눈에 알아 볼 정도이다. 산타는 바알(Baal)이다. 바알은 물질적인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만든다. 가나안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도 바알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속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버렸던 것이다. 산타는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잊게 만든다. 보라리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게 한다. 아기 예수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산타는 누구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다. 사람들은 제물예수를 기다리듯이 크리스마스의 산타를 기다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물의 종류와 유효기간의 차이다. 아기 예수는 구원을 선물로 이 땅에 가져왔다. 산타의 선물은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구원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산타의 선물은 길어야 일 년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이 매년, 매회를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은 단 한번으로 족하다. 속지 말라. 산타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눅 2:14)

(다음주에 계속) (안창덕 목사)



## 스리랑카를 향해 가며

강기영 (선교사)

먼저 고백하고픈 말이 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귀국 후에 내 가슴 속에서 수 없이 되뇌던 말이다. 4년만에 고국의 땅을 밟은 기쁨이었을까? 미국 땅에서 가슴 시리도록 아팠던 때를 기억하면서 무사히 교회 마당을 밟은 안도감때문이었을까? 그저 무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절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으리라.... 피조물이 조물주께 대한 경의함이다.

그렇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무더위의 씨름속에서, 더듬거리는 언어로 아이들과 성경공부하는 행복 속에서, 유지된 고사들과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나일강 저녁놀을 구경하며 달음질했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떠날 것을 미리 짐작이라도 한 듯 아침에 눈만 뜨면 드문 드문 울었던 것을 기억한다. 분명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어도, 어미가 세 살 밖에 어린아이들을 두고 먼 여행이라도 떠나듯 그들과의 이별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던 때가 기억난다. 그러면서 9월은 위원하는 일로 바빴다.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었다. 다시울 것을 기억이라도 한 듯....

나와 함께 고난과 기쁨을 했던 유치원 선생님들, 허름하고 남루하지만 그들의 눈빛만 보아도 가슴 가득 기쁨을 주던 유치원 어린이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무슬림 친구들, 그 외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기도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로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임하기를 소원한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그네이듯 나 또한 그들에게는 수단에 잠시 머문 나그네였을까? 사방에서 그들이 나를 사랑 좋은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도자로 기어와 주기를 바란다.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날까지 나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밤에 못잠을 써서 도망치듯 그들에게서 떠남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기도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나노라" (골 3:13,14)

이제 또 다시 마음 설레는 것은 새로운 사역지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일까? 스리랑카를 향한 나의 마음은 두려왔고 후덥지근한 그 곳 날씨와 불모지들이 흔히 파우를 매캐한 향배며, 그들이 목표로 한 불교적 내세관,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영적인 혼탁함을 느낄 수 있다.

홀로 있으면 나는 무지 작은 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인 것을 만물을 지으시고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1년이란 시간 동안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해 외선부 출신들의 귀국자 심방과 양육 사역, 가정교회 사역, 그리고 양재와 자수를 통한 부녀자 사역 등으로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잘 적응하고 선교사역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잘참기 기다리며 당신의 백성을 이룰 가운데서 찾으신는 하나님의 도구로 겸손히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방 준 영 (목사, 신은가정부 지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첫 성탄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고요한 밤 낮고 가난하게 찾아왔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께서 초라한 구유에 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이룸없고 초라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탄은 첫 성탄과 다릅니다. 대형 백화점과 상가에서 알다투어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열심과 경계를 연거줍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은 산타클로스, 선물, 특별 의식,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낭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이 다가오면서 어린 자녀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00아! 성탄이 왜 그렇게 기쁘고 좋지?", "왜냐하면요, 갖고 싶은 선물을 받으니까요.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민음의 부모라면 어린 자녀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셨습니다(사 9:7). 죄인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구주 예수의 나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의 성탄의 의미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께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 화평을 전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귀한 선물, 이 기쁨의 소식이 성탄절을 맞는 충언의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돌려 인도하심

김창용, 이지영 (신은가정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출 13:17)

결혼한 이후, 부부는 그런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 결혼생활도 큰 문제 없었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사업 역시 점점 견고해졌다. 그리고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다.

한달 한달 시간이 흐르고 그런 상태로 신은가정부에 출석하는 것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였다. '신은가정부'의 대부분의 가정에 아이가 있었다. 아마도 계획한 대로 아이가 생긴 가정은 아이를 못 갖는 가정의 아픔을 모를 것이다. 모일이 끝나고 집에 갈 때면 "나만 아이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울적해하던 아내의 모습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7월 수련회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말에 우리 부부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전보다 열심히 기도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살고자 애썼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역사하셨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으나 먼길로 돌려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돌려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렇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깨닫고 바뀌어 할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 뒤돌아보기 시작했다. 나 태어난 신앙, 고쳐야 할 습관,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려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만약 내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약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많이 교만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려 인도하셨고, 돌려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누워있을 수 있었다. 더더욱 올해가 가기 전에 마침내 정말 귀한 선물까지 허락하셨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선물이 이르지 않나 하는 부끄러움이 들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의 많은 부분을 계속해서 돌려 인도하실 것이다.

돌아가야 할 큰 길! 그 길에도 감사함으로 발견음을 내딛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 간행인 방준영 2001.12.23

마지말

{은혜소녀, 주의 길을 따라가다}

글:구리, 장민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즐거움보다 주님 오심을 알리는데 더 마음을 두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은혜소녀는 물려드립니다. 늘 평안하세요!



(The End)

## 슬투평 위의 신발

박병후, 안철희 (신은가정부)

이제 거리엔 온통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과 아름답게 빛나는 불꽃놀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입니다.

겨울을 실감나게 하는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우리들의 가슴을 더 움츠리게 만들지만 그럴 때마다 지난날 어려웠을 때의 추억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처럼 바쁜 하루의 일과를 하다보면, 이른 아침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잠든 아이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자기를 예쁘게 꾸미고 싶다고 겨울을 쳐다보는 이런 예뻐미(말)를 보면서, 문득 옛 기억 속의 아버지 생각이 느껴집니다.

새벽녘에 방바닥이 식으면서 차가움이 느껴질 때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홀로 큰 창고를 마시며 방에 불을 지피고 소꿉을 끓이던 아버지의 옆모습이 생각납니다. 학교 가는 길에 발이라도 따뜻하라고 잔뜩 얼어붙은 신발을 슬투평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집을 나설 때면 발 앞에 살며시 신발을 내려놓으면서 빨리 가라고 손짓하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우주만물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이 지적분하기 그지없는 마귀간의 말구유에서 친히 태어나시고 더구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 속 깊이 느껴집니다. 때론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름과 상처를 주었던 내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가기 힘든 생활과 점점 더 추워지는 이때에 따뜻한 사랑이 정말 소중히 느껴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 사 화복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 한국 초대 교회의 성탄절 풍속도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들과 한국의 신자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았을까? 개신교 첫 선교사였던 알렌은 그가 도착한 해인 1884년 12월 26일자 일지에서 한국에서 지낸 첫 번째 성탄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다. 우리는 나에게 성탄 선물로 멋진 수놓은 공단 모자와 비단 케이스에 넣은 공단 티셔티 두 개를 주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선교사 가족 차원에서 기념되었을 뿐이다. 1885년에 한국에 파송되어 온 언더우드 선교사 초기에는 자신의 집에 외국인들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하면 한국인 신자들까지 참여한 성탄절 행사는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까?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양지역에서 사역하던 노를 부인은 1896년 그 지역 감리교인들의 성탄절 행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성탄 전야에 부인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부인 30여 명이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우리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과거와 사탕, 밥으로 그들을 대접했다. 성탄절 아침,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한국인들은 물방까지 그대로 둔 장식하지 않은 나무를 하나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성탄절에 예배당에 모여 성탄축하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때 쯤에는 한국인 신자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알고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해가 거듭되고 한국인 신자들이 증가하면서 성탄절 행사도 보다 성대하게 거행되었던 것 같다. 1897년 12월 정동예배당의 성탄절 광경을 살펴보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탄 축하행사에 후의 교회사이다. 즉 전년에 거둔 헌금으로 구구 중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저에게는 배제학당 학생들이 수백 개의 등불을 준비하여 회당 앞에 걸었으며, 그 중 가장 큰 십자등에 우리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쳤다고 글로 써서 놓아 걸어 두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에 등을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알렸던 것이다.

그후 해마다 성탄절에는 기념 장식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으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에는 특별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강점을 당하면서 성탄절 연등 풍속은 점차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만 구제 활동은 활발히 이어졌으며 성탄절 구제 미풍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 7교구 사랑의 쌀 운동



7교구에서 2회째 맞는 ‘이웃사랑 돌기 운동’을 가졌다. 작년 겨울 7교구에서는 작금 미달이나 신성 미흡수로 교회로부터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교우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구비를 아껴 그 교구원들을 돌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교구원들만 돌기로 했던 계획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수를 믿지 않는 국민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어 전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식비와 간식비를 줄여 해 가져쓰고 남은 교구비는 700만원이 넘었으며 개인들의 이름 없는 보조금까지 합쳐서 강동, 송파, 하남, 광주지역별로 신청을 받아 134세대에 각각 쌀 한 포대와 라면 한 박스씩을 나누어 드릴 수 있었다.

시작할 때는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분배하고 배달할까 고민했지만 교구원들이 사정을 알고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 없이 니다나 자신들의 차를 대절해 왔다. 물건을 쌓아 놓을 장소가 없어 한 집사님의 가계를 빌려 물건을 쌓았다. 그 물건들로 인해 장사가 방해되는 모습을 보고 아차했지만, 집사님은 불행 한 마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동네민지라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집도 없이 직접 들고 날라 가는 경우도 있었고, 전화번호 하나만 달고 쌀과 라면을 저고 집을 찾아다니는 난감한 일도 있었다.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아 서로 들어가라고 권유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참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구호물품을 배달할 때면 특별히 더 많은 기도와 함께 전도지를 배포하고 말씀을 나눴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장로님은 “부유한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행복을 모를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작년에 부족했던 예산을 생각해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 주셨음에 교구원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내년의 ‘이웃 사랑 돌기 운동’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운동이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권오승 기자)

### 달고요만한 그 말씀 / 12월 14일 금요일

## 1. 예수님과 바울의 비교 3) 제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림할 때의 현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자세히 묘사했다.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명백히 표현된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다.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살전 4:16)은 예수님이 제림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

대살교회가 후사 2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분명 “감람산에 나타나신다”라고 했고 그 모양을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살후 1:7)라고 묘사했다. 감람일에 나타난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진노의 날에 진노를 받게 된다”(롬 2:5). “평안하다 한단하다 한 자들이 멸망을 결단코 회개하지 못할 것”(살전 5:3)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종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받게 된다”(살후 -8:9). 그러나 예수를 따르고 믿었던 우리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후 “예수께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살전 1:10)이며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살전 4:17)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림할 때 심판을 하여 형벌 받은 자와 율법 당할 자를 구별하시려는 것일까? 왜 당장 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골 1:19-20).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뒷받침한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때 하나님은 살 자의 하나님이라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마 22:31-32)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그 이후의 예수님 제림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역시 거의 일치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 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포함한 미해결로 말씀하셨고 바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말한 십자가를 과거의 과정으로 둔 종말을 중심으로 말씀 하셨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 이외에는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이연주’자매를 소개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제 이민 왔고 남아공에서 알게 된 중천 교회 형제의 인도로 중천 교회 대학부에서 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낯설지만 빨리 적응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 ‘임태연’자매를 소개합니다

교회 새가족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중 대학부에도 나왔습니다. 대학부 집회 중 광고시간에 광고하는 형식이 무척 특이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배성준 (대학부 새가족 통신원)

### 다음줄 전송

##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마틴(G. Martin)이 작시하고 편곡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찬송은 사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찬송곡자로 “동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된 21장에 보면 세 예루살렘이 있고 높은 성곽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동, 서, 남, 북으로 각각 세 문이 있음을 알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미주나 유럽에서의 성도들이 찬양에서 헤어질 때 먼저 가는 분과 약속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동쪽 문에서 만나고자 약속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행여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잊어 못 찾을까 안타깝게 생각으로 열려서 그리 하였지만, 천국은 영의 나라이므로 찾지도 않고 마음을 먹는 순간 만나게 될 것이다. 원문을 해설한다:

1절 - “아침에 만나게 되리니 바로 그 동쪽문 안에서, 총합한 소내에서 예비하시오, 너무 늦지 말고”

후렴 - “천국의 바로 그 동쪽문 안에서 당신을 만나리라, 당신을 만나리라, 당신을 만나리라, 아침에 그 곳에서 만나리라.”

2절 - 마태복음 25장 1~13절의 술기름에 다섯 처녀비유를 생각해 하는데 “만약 당신이 영광의 나라로 가지 않고도 동쪽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바로 아침에 갈때, 오래 기다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3절 - “이 날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쁜 만남이며, 침으로 복된 거룩한 만남이요, 바로 그 동쪽문 안에서”

소망을 가진 기쁨의 찬송으로 기쁘고 밝게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는 “절레,분류에 들어가 있지만 소망 찬송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후렴 부분의 담금질(심육분 염료와 점 불분염료)은 감하지 않게 부드럽고 밝게 찬송일이 해야 한다. (찬양위원회)



## 크리스마스는 재미있는 날?

박 경 욕 (중동부 기자단 교사)

이제 곧 우리가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군요. 벌써부터 화려한 불빛과 예쁜 트리들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꾸며 줍니다. 괜히 들뜨고 흥분되는 크리스마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감. 크리스마스를 다른 날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의 있는 날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여태껏 세계도 크리스마스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만 같은 특별한 날로 다가왔었습니까.

이런 중동부 거울 실로암지를 내기 위해 크리스마스에 관한 자료를 모으며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몇 가지의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성탄절이 되면 왜 기쁜지, 그리고 성탄절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를 물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으나 성탄절이 왜 기쁘게 관한 대답은 역시나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아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곧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축하하는 의미로 서로 선물을 줄 수 있었구나 하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계획은 대부분 재미나게 지내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 오히려 교회는 텅텅 비고 세상은 볼거리로,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이는 크리스마스에 할 일이 없는 이들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과 놀아야 하는데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며 반대하더군요. 아이들의 고사로서 있는 나조차 크리스마스에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을 먹은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나 같은 교사가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아서 좋은 날이고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아야 하는 날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는 사라지고, 세상 누구가 기뻐하는 하나의 행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찾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 성탄절에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 그가 어디 계시뇨?

"해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1-2)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초에 말함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루신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 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영광로우신 분이 태어나신 곳은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습디다.  
매서워 마구간과 같은 곳에 태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드러진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의 완성을 위해 계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의롭게 되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하실 것은 그의 기뻐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니라"(고후 8:9)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아닌 호화로운 예루살렘 왕궁으로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도 아래에 누운 아반이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의 박사들이 해로에 묻었던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거둬들이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죽음과 영생, 그리고 신의 문제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치 이러한 전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디 계시니까?"라는 질문만 인간에게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야가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지 않고 계시니까?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니까?

## 구원에서 돌무덤까지

김 성 경 (전도사, 중동부 부지도)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현관에 큰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다고 한다. 백화점에 꾸며놓은 장식장이, 산 타는 노인이 선물 보따리를 썰매에 싣고 "메리야~ 크리스마스~"하고 부르는 것을 장식으로 붙여 놓았다는 것이다.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는 뒤로 넘어가게 될 줄 알았다.

난 요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분명 정확한 모범답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정말 구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억지써서 받아낸 선물 내지는 용돈에 기뻐하는지, 연말 연시에 천체를 맘껏하게 하여 사람들 혼을 빼는 크리스마스 음악과 장식을 보고 어깨를 들썩이며 기뻐하지 좀 생각해보는 문제다.

작년 성탄절에 중동부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난 과감하게 무화절이나 해야 맞을 마가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성탄절의 의미는 그 성탄의 사건이 목표로서 그 최종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해야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한다면 그가 남기고 간 빈 무덤 앞에서 있는 여제들과 제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 앞에 있던 현실은 말기구에 다시 나신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뒤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할만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현실이 한 상점에 들른다.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산타'라는 노인이나 그 '예한동물'이 안 나오는지 성탄카드를 좀 읽어 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늘 카드를 직접 만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아예 안 보내게 된다. 내가 어렸을 때만해도 꼭 기독교 상점에 가지 않아도 자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라는 노인인가 보다. 크리스마스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소외된 분은 아무래도 예수가 아닐까? 아직도 예수는 남들이 눈치 못 채는 마구간 안의 말기구에 누워 동체 목동 몇 사람하고 외국인 몇 사람의 주목만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 그 날 밤 어디에 있을까? 가늠하리던 그 날 밤 예수님의 빈 돌무덤에 가보고 싶다. 그때 그 여인들, 그 제자들이 보았던 빈 무덤에 가보고 싶다.

## Catechism

### 14.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 (1) 성령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들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롬 8:29). 인간이 피뎌야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므로써 인간과 모든 머리는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믿음으로 씻을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갈 5:16).

물음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디다(마틴 2:9).

물음 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갈 2:20).

#### (2) 성령의 성격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용서나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때로는 성령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은 목적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물음 1. 어떤 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락사아 열매 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율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칭하는 일입니다(계 19:7-8).

물음 2. 성령의 열매인 착한 행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은 단지 구속함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엡 2:8-9)

교회사식 / 새가족

모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24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25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교정 전도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메추리마을
4. 권사교육  
일시: 20일(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의 장로, 7교구 암사3구역 / 14  
일 별세, 16일 장례

결혼

1. 최희준 군(임원지 권사의 아들,  
15교구)과 서혜미 양(서정국 장  
로, 순복의 권사의 딸, 신도봉  
교회) / 27일(목) 13:00 갈릴리  
움
2. 박세영 군(박경용 씨, 김효순  
씨의 아들과 이계환 양(김효경  
권사의 딸, 17교구) / 29일(토)  
14:00 신사동 남서측 해당동사  
치아이를

남녀전도회

1. 베드로 3차회 총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2. 베드로 11차회 총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3. 예스21 14차회 총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만나눔

주소변경

1. 박영봉 집사, 임원지 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34-90 무궁화동 5동 1-1호 ☎  
031-998-6905
2. 조영배 집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27번지 옥빛마을 1513-303 ☎  
031-972-7695

별세

1. 임승태 성도  
(김영미 집사 오전, 정옥채 집사)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 24(월) | 25(화) | 26(수) | 27(목) | 28(금) | 29(토) | 30(주일) |
|-------|-------|-------|-------|-------|-------|--------|
| 황영일   | 최호일   | 강승준   | 박옥용   | 김홍기   | 송창자   | 신동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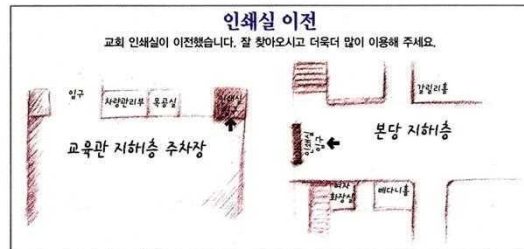
2002년도 교구 모임장소

| 교구 | 모임장소        | 교구 | 모임장소      | 교구 | 모임장소      |
|----|-------------|----|-----------|----|-----------|
| 1  | 교육관 201호    | 7  | 교육관 407호  | 13 | 교육관 205호  |
| 2  | 교육관 314호    | 8  | 본당지하(아멘홀) | 14 | 제2교육관 4층  |
| 3  | 본당지하(호산나홀)  | 9  | 베다니홀      | 15 | 갈릴리움      |
| 4  | 영아부실(선교관1층) | 10 | 교육관 212호  | 16 | 복지관(지하2층) |
| 5  | 메추리마을       | 11 | 교육관 307호  | 17 | 제2교육관 2층  |
| 6  | 교육관 414호    | 12 | 복지관(지하1층) |    |           |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서신: 2001년 12월 첫주~2002년 1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장장기: 2001년 7월~11월
3. 감사서신: 전도위원회(교육관 1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1년 1월~11월), 금원출납부, 원장, 영수증등 등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연도지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연도지     |
|------|-----|----|------|---------|------|-----|----|------|---------|
| 1062 | 장영점 | 1  | 예스21 | 김아영(17) | 1072 | 박모비 | 19 | 고동부  | 이상재(2)  |
| 1063 | 장계순 | 1  | 한나   | 장진옥(1)  | 1073 | 하영옥 | 2  | 청년부  |         |
| 1064 | 매혜동 | 1  | 베드로  |         | 1074 | 차두환 | 2  | 청년부  |         |
| 1065 | 정영애 | 1  | 예스21 |         | 1075 | 김경진 | 3  | 청년부  | 김오근(1)  |
| 1066 | 김봉주 | 2  | 소망부  | 송경수(3)  | 1076 | 오혜희 | 3  | 청년부  | 김오근(1)  |
| 1067 | 이옥남 | 2  | 한나   | 송경수(3)  | 1077 | 박성훈 | 19 | 대학부  | 김정규(1)  |
| 1068 | 신동훈 | 5  | 베드로  |         | 1078 | 김복주 | 19 | 청년부  | 하은옥(15) |
| 1069 | 유혜선 | 5  | 루디아  |         | 1079 | 나승희 | 19 | 대학부  |         |
| 1070 | 박문순 | 6  | 베드로  | 이진규(6)  | 1080 | 이희희 | 19 | 청년부  |         |
| 1071 | 최명순 | 8  | 청년2부 | 박영순(8)  | 1081 | 김종국 | 16 | 베드로  |         |

\* 순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3호 새가족 등록표를 오시기 바랍니다.

충청동산(포지) 산역하실 분

자력: 남지 세교교인으로서 58세 미만  
문의: 사무국 ☎552-8200 (교 406)

교정전도회 교사모집

교정전도회는 2002년 1월 7일~11일까지 신종복합신  
학교(충천선신도회) 겨울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이에 교  
사로 하나나인 사역에 봉사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명감  
을 갖고 교사로 봉사할 분은 교정전도회 박영덕 전도사  
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브니엘 중장년회 모집

군부대 전도관 겸임 요원인 분을 찾습니다.  
피트: 소프도 2명, 엘토 2명  
대상: 50세 이하 여성  
연락처: 심은덕 집사 ☎011-247-4398

차량관리부 봉사자 모집

주말 차량관리부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처: 교육관 지하층 차량관리부 ☎(교 284)

사랑부 교사 모집

재활의학, 정신과, 간호사, 특수교육과 등을 전공한  
50대 이상의 전문직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랑부 교사실 ☎552-8200 ☎3987

남녀전도회 총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베다니홀  
대상: 각교구 전도회 총회

새가족부 홈페이지

일시: 오늘 09:30~11:30 장소: 갈릴리움

2002년도 전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

서류접수: 2001년 12월 23일~2002년 1월 13일(3주간)  
논술면접: 2002년 1월 26일(토) 오전 10:00 교육관 5층  
발 표: 2002년 2월 정일당회 후 주간총회를 통하여  
의: 교육관 1층 104호 교육행정과 장학담당(교 471)

교회오시는길

